

덴마크 Aalborg University in Copenhagen

귀국보고서

화학생물공학부 우지연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년 2 학기 덴마크 코펜하겐 Aalborg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우지연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막 귀국했을 때는 지난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았는데 귀국보고서를 쓰면서 교환학생 생활을 되돌아보니 다시금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쓰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이 귀국보고서가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원할 때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해보았습니다.

1. 덴마크 Aalborg 대학 선택 이유

덴마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였습니다. 공대주관 교환학교 리스트 중 영어권 국가는 호주 밖에 없었지만 치안이나 다른 나라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위치 탓에 호주를 제외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덴마크는 대부분이(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99%)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합니다. 실제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 덴마크어를 하나도 모른 채 영어로 생활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Aalborg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학기가 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과 친구들과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덕분에 외국인에게 먼저 말 걸기가 쉽지 않았던 학기 초반에도 팀원들과 자주 만나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덴마크가 살기 좋은 나라로 유명하고 문화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덴마크 Aalborg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펜하겐으로 교환학생을 가시려면 금전적으로 예산을 넉넉히 잡아두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코펜하겐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 도시인데다가 인건비도 비싸서 생활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일 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비, 교통비, 특히 비자와 숙소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원하기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어학성적입니다. 만약 2 학기 교환학생을 간다면 늦어도 2 월 중순에는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 월 초에 TOEFL 시험을 쳤고 성적이 나오자마자 어학성적과 함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발되었다면 직접 아래의 Aalborg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https://dans.stads.dk/SelfUserRegistration/faces/WelcomePage.jspx;jsessionid=3uMP26BbAvl6O7XI0BMPiRBTeFoL0naVfFWH9taJAIYSM71Yqv0T!671743232?linkId=51305A44526B5355244644451554D3351555304E545933516A4246516A4979524446444E6A457A4D44593D&la=en>

Aalborg 대학은 캠퍼스가 Aalborg, Esbjerg, Copenhagen 세 곳에 있습니다. 전공 별로 수업이 열리는 캠퍼스가 다른데, 화학공학의 경우, Esbjerg 에서 밖에 수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Esbjerg 같은 도시 외곽지역보다는 수도에서 생활해보고 싶었고, 전공지식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Copenhagen 캠퍼스의 Sustainable Biotechnology 전공을 지원하였습니다. (3 지망까지 가능) 지나고보면 코펜하겐에 지원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생활비는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교가 Aalborg 에 있다보니 학생 수도 많지 않고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없는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Aalborg 로부터 합격통보를 6 월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출국 준비를 하려니(특히 비자, 숙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업무 처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종종 합격이 된 상태임에도 통보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늦다 싶으면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internationaloffice@aau.dk

비자 문제 때문에 빨리 결과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면 해줍니다. 메일 제목에 [Emergency]를 붙이니까 하루 만에 워더라구요. ㅎㅎ

3. 비자신청 및 숙소 구하기

덴마크 학생비자 신청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상세히 설명해놓은 블로그가 많습니다. 그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가면 됩니다.

숙소는 기숙사, 에어비앤비, 사설 하우스컴퍼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가장 저렴하지만(월세 약 40) 학교로부터 14km 나 떨어져 있어 등교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던 친구들 말에 의하면 층이 낮아 벌레도 많이 나오고 좁다고 하더라구요. 위생시설도 안 좋고 반 년만 생활하다 다들 이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구한 방이라 위치나 가격이 합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호스트가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설 하우스컴퍼니에도 연락을 했는데 시내에 가깝게 위치한 방이 제가 살았던 곳과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메일이 늦게 와서 저는 거절했지만, 필요하면 여기에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using4students.org/>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학생주택 임대용 웹사이트 s.dk/studiebolig 에 대기명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체로 저렴하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아 6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 월에 신청한 친구는 10 월에 연락이 왔다고 하니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4. 유심과 교통카드

덴마크에서는 lebara 유심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제일 유명하고 모든 세븐일레븐에서 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 통신사라서 다른 EU 국가로 여행갈 때 따로 유심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최고 장점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유심을 사면 보통 공심을 주는데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데이터는 24 시간만 지속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Mylebara'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유심 전화번호(아이폰은 연락처에서 자기 이름을 터치하면 유심 번호가 뜹니다)를 입력한 뒤 데이터를 구매하면 됩니다.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에서 'Rejsekort' 카드를 발급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CPR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personal 카드를 사면 되지만, 없다면 anonymous 카드를 사면 됩니다. anonymous 는 balance 가 personal 보다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환급받을 수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DOT 라는 어플로 정기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교통비로 20dkk 이상 사용한다면 정기권이 훨씬 저렴합니다. 대신 해외여행을 간다고 도중에 정지할 수 없으니 기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방법은 DOT 어플을 다운받고 buy commuter card 를 통해 구입하면 됩니다.

5. 생체인식, 핑크카드, CPR 카드

덴마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생체인식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 웹사이트에서 컨택 날짜를 예약한 뒤, 해당 시간에 방문해서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면 됩니다.

<https://nyidanmark.dk/en-GB/ContactUs/Contact%20SIRI>

그리고 기다리면 우편으로 핑크카드(외국인거주허가증)가 올텐데 만약 한 달이 지나도록 핑크카드가 오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덴마크 사람들 업무 처리 정말 느리게 합니다 ... 최대한 쪼아야 제때 받으실 수 있어요..ㅜㅜ 특히 핑크카드는 해외여행 다닐 때 공항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없어도 비자 서류 들고다니면서 여행할 수는 있습니다.)

CPR 카드는 가까운 경찰서에 보증인(집주인)과 함께 가서서 등록하면 됩니다. 실물 카드가 나오기 전에 카드 번호가 먼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실물 카드는 쓸 일은 없었어서 그리 조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지역 도서관 중에 CPR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덴마크에 적응하는 한 달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끝나치시면 나머지는 즐기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덴마크에 교환학생 가신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것들만 추려서 적어보겠습니다.

1. 운동

덴마크가 다른 건 다 비싸도 운동시설은 정말 싸입니다. 헬스장, 수영, 요가 등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서 폴댄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폴댄스가 한국에서는 한 달에 20 만원이 넘는 운동이지만 덴마크에서는 400dkk(약 7 만원)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어서 제 몸도 들어올리지도 못했지만 4 개월간 꾸준히 하다보니 거꾸로 매달려서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재밌게 했던 운동입니다. 겨울의 덴마크는 해가 빨리 저서 사실 오후 5 시가 되면 웬만한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저녁에 폴댄스 수업을

통해 활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교환학생을 하게 된다면 운동을 하나 하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2. 크리스마스

개인적으로 유럽은 여름도 좋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제일 화려하고 예뻐요. 덴마크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온 시내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고 축제분위기로 들뜨는데, 이 시즌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뇌어포트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티볼리공원에 놀러가는 것도 좋고, 거기서 파는 먹거리를 사먹어도 좋고. 특히 ableskiver 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파는 덴마크 빵이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마트에서도 파는데 한 봉지 사서 오븐에 구워 먹어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티볼리공원은 정기권을 구매해서 편하게 드나드는 게 좋습니다. 코펜하겐에 사는 대부분 덴마크인들은 정기권을 가지고 있어요. 9~10 월에는 금요일마다 공연도 하고,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때는 엄청 화려하게 장식도 해놓기 때문에 종종 놀러가게 될 겁니다.ㅎㅎ)

대신 크리스마스 당일 전후로는 다들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밖에 돌아다니진 않기 때문에 무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게도 덴마크인 친구가 집으로 초대해줘서 친구 가족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진짜 트리에 장식을 달아보기도 하고, 덴마크 전통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가족분들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정말 꿈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마음 먹으면 즐길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방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후회없이 누리고 오세요.

3. 불꽃놀이

12 월 31 일에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날에 덴마크 불꽃놀이 꼭 보세요! 저는 유랑에서 동행을 구해서 갔는데 딱히 명소랄 것도 없이 어딜 가던 폭죽을 터트립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녁 9시부터 11 시까지는 길거리에서 폭죽 구경을 하다가 11 시쯤 되면 티볼리공원으로 가서 대형 폭죽을

구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12 시 직전에는 꼭 시청 앞으로 가서 구경하세요. 정각이 되면 거의 전 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폭죽이 터지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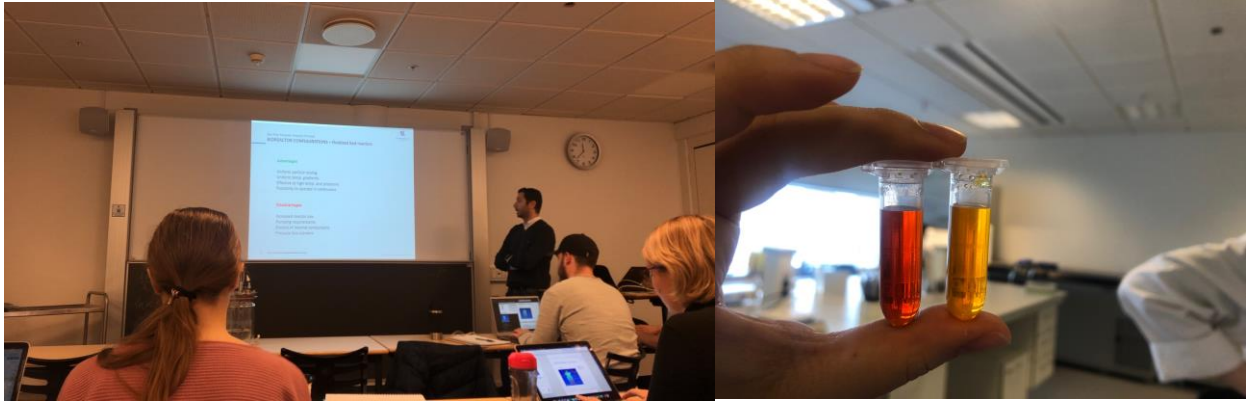
저는 원래 런던에서 런던아이 불꽃놀이를 볼 예정이었는데, 비행기표나 숙소도 너무 비싸고 불꽃놀이 티켓도 암표가 성행해서 한 장에 9 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원래는 만오천원) 런던아이 가시려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계획하고 티켓이나 숙소를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4. 한인교회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코펜하겐에 뇌어포트 쪽 한인교회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외국인 틈에 섞여 살다 보면 한국인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주말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게 큰 위안이 되더라구요. 덴마크 처음 적응할 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집들이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즐겁게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5. 정리하며

덴마크에서의 한 학기는 제 대학생활 중에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흥미로웠고, 팀원들과 직접 실험을 디자인하며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의 수업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꿈 같았던 크리스마스 파티와 한인교회친구들, 학교친구들과 갔던 해외여행 등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공대 대외협력본부에 정말 감사드리고,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학생분들도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서 값진 경험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생활



크리스마스 파티



티볼리공원